

토론:

“현대 교육의 고민과 불교의 역할”에 대한 토론

김 정 호

(덕성여대 교수)

발표자 (박선영, 1995 : 7-15)는 현대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현대문화를 진단하면서 제기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에 불교가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 토론자는 전반적으로 발표자의 입장에 공감하며, 발표자의 입장이 발전적으로 보완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몇 가지 점을 첨가하고자 한다.

발표자의 현대문화에 대한 비판은 포괄적이면서도 간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발표자가 지적하고 있는 대로; “르네상스 이래 확대 일로의 길을 달려온 욕망충족의 역사는 마침내 인간을 감각적 향락의 늪에서 헤어نا지 못하게 하여 인간성을 황폐화시키고 있 [으며] ” (p. 7); “저마다 도덕성의 타락을 개탄하고 있으나 자기 자신은 개인적 또는 집단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해 모두 도덕적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 (p. 8). 토론자 역시 이와 같은 발표자의 현대문화 비판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현대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위와 같은 문제를 발표자는 교육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발표자는 교육의 역사를 간략하게 돌아보며, 근대에 들어오면서 “교육의 대형화와 획일화는 더욱 심화되어 [왔음] ” 을 지적하고 있다 (p. 10). 발표자는 이러한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도를 소개하며, 그 어느 것도 만족할 만하지 못함을 논의하고 있다. 발표자는 “서로 다른 교육관과 교육이론들만 무성할 뿐이며 이들을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오리무중의 상태” 에 있는 것이 현대의 모습이라고 하며 (pp. 11), “현대의 교육은 교육 그 자체

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라고 지적하고 있다 (p. 11). 토론자는 발표자의 이와 같은 현대 교육에 대한 진단에는 전반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이러한 현대교육의 문제점과 위의 현대문화에 대한 진단이 지닌 관계는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불명료는 아마도 인간이 교육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존재이므로, 현대의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 역시 교육의 문제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추론은 발표자의 교육의 본질에 대한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도 엿볼 수 있는 것 같다: “교육의 본질은 원래 사람이 삶을 통해 삶속에서 삶을 익히면서 보다 바람직한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적인 존재가 되게 하는 데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삶이 있기 시작하면서부터 동시에 교육의 작용은 있어 왔다” (p. 9). 그러나, 여전히 현대 문화에 대한 진단, 즉 현대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현대 교육의 문제간의 구체적인 관계는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다.

현대의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와 교육의 문제간의 관계에 대한 발표자의 입장은 교육과 불교와의 논의에서, 여전히 직접적으로 다루지고 있지는 않지만, 좀더 잘 살펴볼 수 있다. 행간을 읽으며 정리해 볼 때, 발표자는 현대의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는 부적절한 세계관에서 비롯되며, 부적절한 세계관은 교육에서 연유한다고 보는 것으로 사료된다. 발표자는 불교의 세계관을 통하여 현대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발표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불교의 세계관은 중도의 연기법의 세계관으로, 부처가 가르치기를, 이것을 깨달으면, “모든 것을 실체화하여 나와 너를 분별하고 이에 기초하여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히는 삶에서 벗어나, 나와 너가 하나인 경지에서 지혜와 자비를 자주적으로 실천하면서 진정 평화롭고 행복한 바른 삶을 실현할 수 있다” (p. 12). 그러나 현대교육에서 조장되는 세계관은 무엇이고, 이것이 발표자가 주장하는 보다 바람직한 세계관 혹은 불교적 세계관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좀더 충분히 그리고 명료하게 다루어졌으면 하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이러한 불교적 세계관은 다른 종교 혹은 다른 이론체계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지, 또는 이들 종교나 이론체계의 세계관과 어떻게 다르고 비슷한지 등에 대한 비교가 있었다면 하는 바람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인간의 문제를 부적절한 세계관에서 찾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적어도 하나의 훌륭한 접근이라는 점에 토론자는 동의한다. 참고적으로 현대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겪고 있는 많은 심리적 및 신체적 고통이 인간이 자기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frame of cognition)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비롯된다는 입장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의 틀의 변화를 통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예, Beck, 1976, 1991; Peterson & Seligman, 1984; Peterson, Seligman, & Vaillant, 1988).

발표자는 또한 불교의 세계관이 전통적인 교육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현대교육이 흔히 명상이라고 불리는 불교의 수행과 발표자가 “중도의 논리학”이라고 명명한 불교의 사고방식을 수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명상을 통한 앎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체험적 지식으로서의 지혜로서, 이것은 “현대의 교육문제를 풀어 가는데 새로운 시야 또는 지평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p. 13). 이러한 발표자의 주장에 토론자는 크게 공감한다. 특히 토론자 역시 몇몇 논문 (김정호, 1994a, 1994b)에서 명상을 통한 체험적 앎은 일반적인 교육에서 얻어지는 과학적 앎과 함께 인간의 올바른 앎을 위한 상보적 관계에 있음을 논의하였다. 한편 중도의 논리학은 일상적인 교육에서 제공되는 사고방식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나, 토론자도 이것 역시 현대의 지나치게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치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한다. 기본적으로 중도의 사고방식은 정보처리의 방식에서 볼 때, 선형적 (linear) 처리와는 대비되는 비선형적 (nonlinear) 처리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뇌의 좌반구적 처리와는 대비되는 우반구적 처리라고도 할 수 있다 (Ornstein, 1977, 1986 참조). 이러한 비선형적 처리의 능력은 명상과 같은 수행을 통해 체험적으로 잘 얻어질 수 있는 것이나, 우화와 같은 교훈적 이야기를 통해서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Ornstein, 1977, 1986 참조). 이러한 우화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 비유는 대개의 경우에 비선형적인 처리를 통해서 이해되는 것들이다. 따라서 우화를 읽으며 자연스럽게 비선형적 처리의 능력이 배양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적으로 부처 자신의 가르침을 전달할 때 풍부한 비유를 많이 들고 있으며, 명상을 수행하는 동양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되는 이슬람교의 일파인 수피파 (Sufism)에서는 가르침을 위한 우화를 많이 가지고 있다.

토론자는 교육방법과 관련해서 위에서 몇 가지 첨언을 했는데, 이는 좋은 교육방법의 개발 및 도입이, 불교의 세계관이라고 발표자가 표현한 바람직한 세계관을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게 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발표자는 발표의 말미에서 “[불교]의 세계관에 기초한 교육의 이론을 어떻게 발굴하고 재창조하여 교육의 실체에 기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단한 관심과 정진이야 말

로 불교교육학도들에게 일차적으로 지워진 임무” 라고 하였으나 (p. 15), 토론자는 오히려 불교의 세계관을 효율적으로 획득하고 전달하기 위한 교육의 이론과 방법론의 발견, 개발, 및 적용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어쩌면 발표자와 토론자의 표현만의 차이일 수 있으며, 또한 발표자의 교육의 이론에는 방법론이 커다란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불교의 세계관을 체계화시키는 작업이 중요하게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비록 궁극적으로 불교의 세계관이 체험적으로 획득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과학적인 이론화가 상보적으로 함께 이루어질 때, 불교의 세계관에 대한 이해와 전달이 보다 완전해지리라고 기대된다. 이러한 작업에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기존의 여러 종교와 이론체계에서의 세계관과 불교의 세계관을 비교하는 연구 역시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또한 불교의 세계관이 보편적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믿어진다.

<참 고 문 헌>

- 김정호 (1994a). 인지과학과 명상. *인지과학*. 4 & 5, 53-84.
- 김정호 (1994b). 구조주의 심리학과 불교의 사념처 수행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3, 186-206.
- 박선영 (1995). 현대교육의 고민과 불교의 역할. *종교교육학연구*. 1, 7-15.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eck, A. T. (1991). Cognitive therapy. *American Psychologist*, 46 (4), 368-375.
- Ornstein, R. E. (1977). *The psychology of consciousness* (2nd ed.). W.H. Freeman and Co. Ltd., San Francisco. 이봉건 (역). 의식심리학. 서울: 성원사.
- Ornstein, R. E. (1986). *The psychology of consciousness*. (3rd ed.) New York: Penguin.
- Peterson, C., & Seligman, M.E.P. (1984). Causal explanations as a risk factor for depression: Theory and evidence. *Psychological Review*, 91, 347-374.
- Peterson, C., & Seligman, M.E.P., & Vaillant, G. (1988). Pessimistic explanatory style as a risk factor for physical illness: A thirty-five-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22-27.